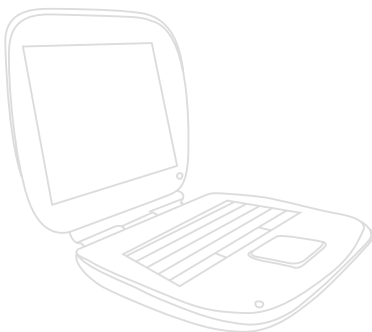




본지 김한웅 부장

HPAI 발생 더 이상 용납 안된다 업계 불황 장기화의 단초 될 수도...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處暑)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한 낮의 무더위에 심신이 지치지만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절기(節氣)의 오묘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 업계의 형편으로는 찬바람 운운하며 계절의 정취에만 취해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찬 바람이 불면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난제인 HPAI가 언제 또다시 터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엄습해온다.

‘어떻게 올해만은 무사히 넘어갈 수 없을까’ 하고 바라보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올해만큼은 HPAI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가금관련업계 전체의 합심된 마음과 이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앞선다.

본회에서는 육계사육농가들이 육계질병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육계 질병 및 방역 세미나’를 오는 9월 7일 대전 유성 ‘에이스 웨딩 &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HPAI를 비롯 최근 성행하는 육계질병을 중심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철저한 방역 및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 HPAI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HPAI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준비하고 있는 전국 순회교육은 축종별이 아닌 가금산물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HPAI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육계, 산란계, 오리는 물론이고 메추리사육농가 등 가금산업 관련 전체 농가를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우리는 HPAI 발생이 업계 전반에 걸쳐 어떠한 피해를 끼쳐왔는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HPAI의 발생은 발생농가나 인근 주변농가뿐만 아니라 전체 닭고기 소비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HPAI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보다 소비감소세는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국내 전체 소비량의 5~10%의 소비위축을 보이고 있다.

매년 5% 이상씩 닭고기 소비량을 신장해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HPAI의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육류소비시장은 벌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양질의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 소비를 늘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닭고기는 HPAI에 안전하다는 자기 방어적인 논리만 펴고 있으니 이 또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우, 낙농, 양돈업계 등은 일년에 100억 여원의 자조금을 조성, 각 생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소비량을 늘려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닭고기 업계는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는 고사하고 소비위축

을 최소화시키는데 전전공공 해왔다.

결국 질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육계 및 닭고기 산업의 비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원종계 및 종계의 과잉 입식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장기간의 극심한 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이를 수습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HPAI까지 발생,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육계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도 필요하겠지만 HP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업계와 농가의 피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개인이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 인근농장의 움직임까지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공통된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HPAI 발생이 없는 한해를 만들어 보자. 🐔👉